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인문사회계열Ⅱ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I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4. 음악실(낮)

함 선생님: 음악 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건,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학생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웅성거린다.)

함 선생님: 자, 주목! 이 게이름은 뭘까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자 더 큰 소리로 칠판을 탕탕 쳐 가면서) 자, 주목! 악보를 볼 때, 높은음자리표가 그려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 주목!

아름: 원래 소리 배울 때 악보 보고 안 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지.

insert 함 선생님의 집 책상 한쪽에 “국악 용어 해설집” 책이 쌓인다.

#16. 음악실(낮)

함 선생님: 자, 주목! 오늘은 발성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함 선생님: (은경을 가리키며) 음정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은경: (당황한 듯) 음정이요? 농음(국악에서 소리나 연주자가 내는 즉흥적인 꾸밈음)인데요.

함 선생님: 농음?

은경: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함 선생님: 잘 들어요. 음정을 정확하게 내야 화음이 쌓이지, 그렇게 끝이 흔들리면 음정이 제대로 쌓아지겠어요? [중략]

함 선생님: (한숨을 쉬며)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음악, 국악의 맛이라고 칩시다. 근데 합창은 그냥 국악이 아니에요. 음정이 정확하게 쌓아져야지, 그래야 화음이 나오지, 음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름: 그럼 다 같이 농음으로 약속하면 되죠. (함 선생님, 바닥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한숨.)

insert 함 선생님 집, 책상 위 “국악 용어 해설집” 위에 “창작 국악 관현악”, “한국 민요 합창곡집”, “다시 보는 판소리” 책이 쌓인다.

#18. 음악실(오후)

함 선생님: 어제는 내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갈게요. 자, 뭘 할 거냐면! 누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대결을 할 거예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음정 쌓기 대결을 하고, 웃긴 표정과 음정 이탈로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넘친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

#20. 음악실(오후)

함 선생님: 여러분하고 함께 합창을 만들어 가면서 너무 내 소리만, 내 음악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합창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듯이 함께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건데, 내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장단, 가락, 시김새, 뭐 이런 것들과도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합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곧 방학이었고, 앞으로 내 꿈을 위해서도 그러면 뭔가 이 참에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 줄 것이 있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던 처음엔 하루 네 시간씩 자고, 시험이 시작되어 그것이 끝나는 나흘 동안엔 두세 시간씩만 잠을 잤다.

기다리던 성적표는 방학 이틀 전날에야 우편으로 날아왔다.

“주산만 아니면 전교에서 1등도 할 수 있었는데…….”

“애비도 그게 궁금해서 그런다. 주산 점수는 왜 그렇게 나온 건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업 학교에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저도 그동안 하노라고 했는데.”

“그러기에 왜 애초에 상고를 가?”

“몰랐지요,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농사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건 뭐 아무래도 괜찮다. 적성이 맞지 않으면 적성이 맞는 쪽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학교로 가면 주산 같은 거 놓지 않아도 될 테고.”

“…….”

“이제 적성이 아닌 걸 너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학교를 옮겨 줄까?”

“농고로요?”

“아니, 인문계 학교로 말이다.”

“거긴 싫어요. 농고라면 몰라도.”

“인문계 학교로 옮기면 지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또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전학을 가더라도 먼저 거기서 애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안 가요, 거긴. 공부 오래 하는 거 싫어서 일부러 상고를 간 건데. 주산만 아니면 괜찮겠는데, 주산 때문에 졸업을 한다 해도 은행 같은 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러다 나중에 바로 농사지을 거예요.”

그 기말고사를 통해 나는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이대로라면 나 혼자 애만 쓰다 말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아버지에게 내 생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걸 심어주고, 또 앞으로도 내 뜻과 내 꿈이 농사에 있다는 걸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착실하게 고랭지 농사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봐 두고 또 손으로 익혀 두자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인문계 학교 전학 얘기를 하며 말리던 아버지도 나중엔 마지못해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다.

(다) 심플리치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궤변, 이율배반, 기타 여러 거짓을 구별해 내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런 그가 이것에 대해 착각했을 리가 없어. [중략]

살비아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어떤 물체를 던져 올리면 그 물체가 같은 수직선을 따라 내려와 던졌던 바로 그 위치에 떨어진다는 것이지. 심플리치오,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가 곧은 수직선을 따라 중심으로 떨어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를 인용하지 말고 해 보게.

심플리치오: 눈으로 보면 알게 되지. 탑은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고, 거기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스칠 듯 탑을 따라 떨어지지.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원래 떨어뜨렸던 곳의 바로 아래 지점에 떨어지게 돼. [중략]

살비아티: 그렇다면 말이야. 만약에 배가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돌이 정지해 있는 배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면, 돌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배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나?

심플리치오: 절대로 판단할 수 없지.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맥을 짚어 보아 판단하려는 것과 비슷한 것이야. 맥은 늘 뛰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살비아티: 잘 알겠네. 그런데 자네는 실제로 배에 올라가 이 실험을 해 봤나?

심플리치오: 해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나는 이 실험을 인용한 권위자들이 이걸 엄밀하게 관찰했을 거라고 믿어. 게다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지.

살비아티: 자네 자신을 보면 그 권위자들이 실험을 해 보지도 않고서 이것을 예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네는 실제로 해 보지 않고서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언명을 굳게 믿고 있잖아? 그 권위자들도 아마 그런 식이었을 거야. 아니, 그런 식이었던 게 틀림없어. 다들 그들의 전임자를 믿고 기대었기에, 거슬러 올라가 봐도 누구 한 명 실제로 실험을 해 본 사람이 없어. 실제로 실험을 해 보면 책에 써 놓은 것과 반대가 됨을 알게 될 거야.

(라) 반장이 된 형우는 시험 날 모범생들과 짜고 기표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원치 않는 도움에 기분이 나빠진 기표는 재수파들을 불러 형우를 때린다. 하지만 형우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기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의리의 사도로 부각시킨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러 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중략]

형우와 기표 사이에도 이렇다 할 마찰이 없이 여름 방학이 지났다. 기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중략]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무단결석이었다. [중략]

그는 서랍에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마) 매체를 바로 보려면 매체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매체는 편집 과정을 거친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는 어느 날 오후,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쉴 때 먹

으려고 사과 하나와 과도를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사야 할 것이 생각나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룡,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전철역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표정은 암울해 보였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 나는 방송 매체와의 면담을 좋아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매체는 편집을 하며 시청자는 편집 과정을 볼 수 없다. 또한 매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매체를 바로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매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도 의도적인 편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은 관계를 말하는데, 사건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의 본질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전후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에 따라 같은 소재를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바) 전통적으로 라다크에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공격적인 행동이란 지극히 드물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기거나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나는 소남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언쟁을 하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하는데요.”

“마을에서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글썄요……. 아주 드물어요, 어쨌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다시 질문을 하자 소남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땅의 경계선 같은 문제로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따져 보겠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제삼자가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든 그에 맞는 중재자는 항상 그곳에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일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중재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찾는 대상은 아니다. 상황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재자이다. 누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심지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중재자가 나타나 언쟁을 하던 다른 아이들 사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사) 배려 윤리는 도덕적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보살핌의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상이다. 나딩스가 보기에 정의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관계성과 배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규정하면서, 진정한 윤리적 삶의 본질은 서로 알게 되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며, 상대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구체적인 요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벗어난 개인적 판단이나 결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사이의 만남을 중요시한다. 배려자는 타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배려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피배려자는 배려를 수용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배려가 완성된다고 나딩스는 말하였다.

(아)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 존재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이 아닌 존재는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동식물과 같은 존재는 인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 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의 목표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바탕이 되었고,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생명 개체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개체 중심적인 환경 윤리를 비판한다. 이에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일론적 입장을 취한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다. 대지 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대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생태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 왔으므로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은 무익하다고 본다.

(자) 이 물건은 1995년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바 아바에 의해서 고안되었다. 이 제품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항아리와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모래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항아리 사이의 물이 증발하면서 작은 항아리 안에 있는 열을 빼앗으므로 채소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대기 중에 그냥 보관했을 때는 2~3일이면 상하던 토마토가 이 제품을 이용하면 21일 동안 보존되고, 신선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의 소득이 증대된다. 이 제품의 가격은 1달러 정도이며 전기 없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등장인물들 간 '상호작용의 방식과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반 아이들이 형우의 연설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을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고, 반 아이들이 학급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설명된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의 사례에 근거하여 제시해 보시오. **[20점, 400-420자]**